

향군성명

“구국의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라”

호국영령 잠든 서울 현충원 안장, 국가의 마지막 도리 ... 안장 논란 일침 전쟁영웅 존엄성 지키기 운동 전개, 호국영령 파묘 등 입법추진 강력 대응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밤 11시 4분경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살아있는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또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백장군님의 조문과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백선엽 장군님이 6.25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12만명의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현충원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가 백장군님께 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군은 성명에서 “그 동안 향군이 수 차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백선엽 장군은 창군멤버로 6.25전쟁 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몸으로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구국의 영웅이며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살아오신 분으로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살아있는 전쟁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



한 뒤 “이렇게 국민 모두가 존경하고 추앙받아야 할 분을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경력만을 이유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것은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백선엽 장군의 조문과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입장이나 논평 한마디 없이 전쟁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군은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전쟁 영웅들의 존엄성 지키기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소위 친일파 운운의 호국영령들을 파묘하지는 등의 입법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군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해 전국 223개 시 군 구회마다 추모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특성에 맞게 분향소를 설치하여 향군회원은 물론 뜻있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전쟁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해 왔다.

(관련기사 6, 7면)

백선엽 장군 안장식 참석, 마지막 길 배웅하며 영면기원

광복회 등 시민단체 안장반대 시위에 맞불 “6.25전쟁 영웅 현충원 반대가 웬 말이냐!”

향군은 7월15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 참석, 장군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며 명복을 빌었다.

향군은 “국군의 아버지이자 구국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에 비통한 마음과 슬픔을 감출 수

없지만 장군께서 이제 나라걱정 안보걱정 모두 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장식에 앞서 도착한 향군회원 500여명은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광복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현충원 정문 옆 인도에서 안장 반

대 현수막도 내걸고 안장을 방해하는 데 대해 분노하며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의 명복을 빕니다” “6.25전쟁 영웅 현충원 반대가 웬 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과 추모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한편 원만한 안장식 진행을 위해 측면 지원했다.



향군은 7월15일 고 백선엽장군의 안장식이 열린 대전국립현충원 앞에서 안장반대 단체에 맞서 맞불집회를 가졌다.

향군, “우리민족에 총 쏘 이긴 공로” 운운 노영희 규탄 역사인식 문제 많은 무책임한 가짜 지식인, 석고대죄 요구

향군은 7월13일 MBN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6·25 전쟁영웅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토론에서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쏘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하여 어떻게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한 데 대해 7월15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노 변호사를 강력 성토했다.

향군은 성명에서 노 변호사가 백선엽 장군을 근거도 없이 친일로 낙인찍어 매도하면서 현충원에 묻어야 되는지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1천만 향군의 이름으로 △6·25전쟁은 누가 일으켰으며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누구와 싸웠는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향해 총을 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화를 원한다는 것인가? 등 5개 항을 공개 질의했다.

이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백장군이 간도특설대 근무 당시 독립군을 참살하거나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에게 모든 방송에서 손을 뗄 것과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 그리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석고대죄 하라고 요구했다.

안보전망대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 의회 동의 없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안 돼

미국 하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욱 강화됐다. 미 하원은 7월2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약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했다. 상원도 7월23일(현지시간)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하원 법안에는 전년도에 이어 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

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새 시대 새 향군 건설’ 목표, 여러 차례 혁신 추진

향군조직(하) : 2000년 ~ 현재

희망의 새천년(2000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제46차 정기전국총회에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상훈 회장은 취임 직후 새천년 대 변혁의 시대를 맞아 이에 걸 맞는 ‘새 시대 새 향군 건설’이라는 발전 목표를 내걸었다.

본부조직 4국 6실로 개편, 현재는 3국 사업개발본부도 신설, 수익사업극대화

이에 따라 새 시대 향군발전위원회가 발족되고 3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새 시대 향군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연구 안에 따라 본부 기구 개편안이 추진됐다. 이때 본부 조직을 3국6실에서 4국6실로 조정하면서 조직복지국을 조직국으로, 호국안보국을 안보국으로 하고 사업관리국을 신설했다.

그 후 2001년 4월 3일 이사회에서는 연봉제와 자원봉사자를 확대 운영하고 부서별로 직위를 부서장, 부장, 과장, 계장, 담당, 사무원등 6단계로 줄여 부서장, 부장(2~3급), 담당관(3~6급), 사무원(7~9급)으로 조정했다.

또 2002년 12월23일 이사회에서는 조직국 회원관리팀을 회원관리부로 승격하고 수익사업극대화를 위해 사업개발본부를 신설하여 SOC사업, 주택사업, 레저사업, 환경사업 부장을 두도록 했다.

그 다음해 12월 23일에는 필요에 따라 안보국에 인터넷 안보부를 신설하고, 인터넷 매체 코나스(Konas.net)를 개설하였으며 현충사업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되고 사업개발본부가 직영사업본부로 전환됐다.

2005년 12월 23일 제3차 이사회에서는 향군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향군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향군 혁신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해왔다.

신규 채용 및 복무연장을 제한하고 2008년까지 본부 및 시·도회 직원 25%를 감축 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우선 안보국과 홍보실을 통합하여 정책홍보국으로 하고 감사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합하여 혁신기획실로, 복지부와 참전부를 통합하여 조직복지국으로 하고 본부 정원을 2008년까지 99명에서 73명으로 줄였다.

2006년 4월21일 31대 회장으로 박세직 장군이 취임하고 큰 변화가 없다가 2008년 3월20일 이사회에서 감축 운영되던 조직을 2005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했다.

혁신기획실은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홍보국에서 홍보기능을 독립하여 홍보실/대변인실로 신설하였으며 안보문제연구소를 직제에 반영했다.

또 그해 12월18일 이사회에서는 시·도회 조직을 4부를 3부로 하면서 복지부를 감축하고 여성부를 비상근으로 조정했다.

경영총장제 도입, 청년국 신설 자산관리본부, 경영본부와 통합

2009년 9월 25일 박세직 회장의 유고사태로 박세환 장군이 3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회장 취임 후 7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편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2011년 사업국이 생기고 경영총장제가 도입 되었으며, 2012년에는 청년국이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산하업체의 사업구조개선책의 일환으로 자산관리본부를 경영본부에 통합하고 유사기능을 통합·조정했다.

35대 조남풍 회장이 취임하였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에 사퇴하면서 2년 가까이 대행체제가 유지되다가 2017년 8월11일 현재의 김진호 회장이 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진호 회장은 조직의 통합과 슬림화를 통해 역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선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늘과 같은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군이 전대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슬림화를 통한 위기 극복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홍보실>

한국군의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보류해야 박휘락 교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판문점 공동선언의 핵심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류해야 한다.”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주장했다.

박 교수는 7월21일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은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의 지원과 증원을 책임지며 유엔군 사령관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담당하는데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할 경우 이 세 개 사령부 간의 협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엔군 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의 원천이고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비롯해 세계적 지원력을 통합하는 근간이기 때문

에 이것이 분리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지휘통일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일 지역에서 다수 국가의 군대가 동일한 목표 하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지휘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작전통제이기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군사주권’이란 감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통제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지휘 기구를 새로 설치하거나,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요원으로 대거 보직된 다음에 유엔사를 단일 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지휘통일을 위한 확실한 방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 군사행동,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도... 북한, 대화보다 도발 택할 가능성도 높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성기영 책임연구원이 연구원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201호에서 “현재 북미 양국의 선택만 놓고 보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미국 대선 분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군사행동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이 북미대화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워싱턴 당국자들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 향후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보다는 도발을 택하는 쪽에 더 큰 유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북 양국 모두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 백선엽 대장의 장례를 지켜 보면서 느끼는 소회는 각기 달랐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라는 찬사와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에 근무했으니 친일파라는 두 갈래 평가가 나왔다. 백선엽 대장의 장지도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인사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백장군 독립현충원 안장 논란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평가 기대**

정부에서 '공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백선엽 장군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2003년 이라크 나시라아에서 서희부대의 일원으로 민사작전을 수행하였고 2005년 바그다드에서 국방무관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다국적군은 최우선으로 이라크군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기관 요원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해산시켰다. 대신에 그 자리는 쿠르드 민병대를 포함한 사병조직으로 채워졌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필자가 현장에서 만났던 강제 해산된 군인, 경찰, 정보기관 대부분의 요원들은 사담 후세인을 위해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바트당

■특별기고

역사의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다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추도하며-

에 강제로 박봉의 일부마저 빼앗겼다고 했다. 반면에 그들은 후세인 정부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는데 숙명적으로 단지 후세인 정부의 군인, 경찰, 정보요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홍글씨의 낙인이 찍히는 굴레를 덮어쓰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이나 경찰 및 정부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과거 후세인 정부의 우수한 군인이나 경찰 등을 채용하여 그들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동티모르 파병을 다녀온 지인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바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독립 초기에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대거 행정에 참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은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느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기회도 놓쳤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행정조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독립 이후 초기 단계에서 국가 경영의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결국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 독

립 이전의 행정 관료들이 대거 재기용되었다. 또한 식민지 당시 동티모르 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른 정부 관료들에 대한 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이 과거 36년의 일제 치하로부터 광복된 직후 겪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즉 미군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제 치하의 군인이나 경찰, 관료 등을 다수 채용하거나 조직에 포함시켜 그들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다. 정치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장군이 비록 나라가 없던 시절 일본군에 들어가 활동한 경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창군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6.25전쟁에서 온몸으로 공산침략을 막아내고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살아오신 만큼 그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

**나라구한 호국영웅 백선엽
'위국헌신' 후배 군인들의 표상**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고 장병들을 애국심으로 독려하여 8,000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 여명의 총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발판으로 반격작전에 나서 평양진군의 선봉장이었다. 전쟁 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당선자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성사시킨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에 견주며 유례 없는 최고의 찬사로 애도의 성명을 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는 조직이다. 현대를 사는 군인들이 선배들의 위국헌신을 올바르게 배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복무하는 멋진 모습을 만나고 싶다.



박 상 중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단신

첫 군사전용 위성 '아나시스 2호' 성공발사... 세계 10번째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7월20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 아나시스 2호가 팰

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고 밝혔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이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8분께 첫 수신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궤도(약 3만6천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이후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림에 따라 정보처리 속도, 전자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기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다.

미 해군 주관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림팩 참가

해군 환태평양훈련(RIMPAC) 전대가 2020 환태평양훈련 참가를 위해 7월18일 제주민군복합항에서 하와이로 출항했다. 림팩 전대는 서에류성통함(DDG, 7,600톤급), 충무공이순신함(DDH-II, 4,400톤급), 해상작전헬기(LYNX) 2대, 장병 570여명으로 구성됐다.

림팩(RIMPAC : RIM of

PACific exercise)은 197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7번째로 진행되는 환태평양훈련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 간의 해상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능력,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 능력 및 연합작전능력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 해군 주관으로 격년제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훈련이다.

우리 해군은 1990년 첫 참가 이후 올해로 16번째 참가한다.

이번 훈련은 내달 17일~31일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린다. 우리 해군은 기동부대사령관(CTF)으로서 다국적 연합전력으로 구성된 함정들을 지휘하며 해양차단작전, 해상공방전, 대잠전, 수상전 등 해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훈련에 참가한다.

국방부, 휴전선 접경 5개 군과 상생발전협의회

국방부와 강원도가 7월21일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

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난 1월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군사규제 완화, 유희부지 활용, 공무원 근로자

지역인력 우선채용,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군납품목 확대 요구 등을 포함해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희부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폭우로 유입된 관광지 청소

육군8군단이 7월3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요청에 따라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와 양양군 남대천 일대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쳤다. 102기갑여단과 특공대대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활동은 6월29, 30일 내린 폭우로 주요 관광지에 쓰레기가 유입되자 이를 수거·처리하고 2차 오염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장병들은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청초호·남대천 일대에 떠다니는 각종 부유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헌혈증·마스크 기부

해군7기동전단 울곡 이이함 부사관들이 7월14일 제주백혈병소아암 협회를 방문해 헌혈증 100장과 마스크 200장을 기부했다. 특히 윤보훈 원사는 헌혈증 100장 중 절반에 육박하는 45장을 기부해 화제다. 윤 원사는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인 헌혈을 시작해 지난해 헌혈 100회 달성자에게 주는 명예장을 수상하는 등 지난 15년간 112회의 헌혈을 해왔다. 혈액량으로 계산하면 약 4만5000ml에 달한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과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부대 인근 20곳 경로당 방역

공군16전투비행단이 7월1일, 2일 부대 인근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대민 방역지원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 폐쇄됐던 지역 경로당의 재운영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방역은 경북 예천군 내 12개 지역 20곳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방역지원에 나선 장병들은 경로당 시설 내·외부를 비롯해 사용이 빈번한 비품과 소모품 등을 꼼꼼하게 소독했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내 무더위 쉼터를 집중적으로 방역했다.

소아암 환자 위해 모발 기증

해병대2사단 선봉여단 김미경 대위, 김교령 중사와 해병대9여단 정보통신대 김경진 중사가 암 투병 어린이들을 위해 잇따라 모발 기증했다. 이들은 소아암 환자를 위한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자 수년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며 길러왔다. 그리고 지난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머리카락 나눔 운동을 펼치는 '어머나 운동본부'에 자신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기증했다. 이들이 기증한 모발은 항암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보훈단신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식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

국방부는 6월17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0 전역 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무관중·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최초 3월에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몇 차례 연기되었고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하게 되었다.

각 기업체 부스에서는 기업체에서 촬영한 채용설명회 영상을 전직교육원 취업박람회 홈페이지(http://moti.career.co.kr/)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장병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에는 기업체 채용관(70여개), AI 체험관(8석), 진로도우움 컨설팅관(8석), 창업관(3석), 인적성검사관(20석), 취업세미나관(50석)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온라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영상을 박람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까지 운영하며 오프라인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온라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영상을 박람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까지 운영하며 오프라인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 기념공원 환경정화활동 미 고등학생에 국가보훈처장 포상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미 피츠버그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고등학생('20. 6월 졸업) 세 명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미국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미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다.

올해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리 장(Yuri Jang), 알렉스 말 프레 게 오트(Alex M

Malfre geot), 다니엘 신(Daniel M. Shin) 세 명의 수상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참전용사에게 감사편지쓰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포상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참전국의 미래세대들이 '6·25전쟁'과 '유엔참전용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 이천호국원 찾아가는 나라사랑 보훈체험 실시

국립 이천호국원(원장 이순희)은 7월13일부터 12월말까지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찾아가는 나라사랑 보훈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나라사랑 보훈체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호국 영

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염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찾아가는 나라사랑 보훈체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학교는 국립이천호국원 현충선양팀(031-645-2331~4)에 문의하면 된다.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긴급 대부금 50억원 편성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

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희생·공헌에 감사 7월27일 법정기념일로 제정, 유엔참전국 우호 강화



국가보훈처는 7월27일 오전 10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6·25전쟁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유엔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로 참석하지 못하는 유엔참전용사들을 대신하여 국내 유학 중인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이 함께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이날 무대에 나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서명되던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사자 1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협회에서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신해온 '샬럿 오케인(Charlotte O' Kane)'씨 등에게 정부포상이 대리 수여됐다.

'유엔군 참전의 날(7.27)'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정전 제60주년을 맞은 2013년부터 매년 기념해 오고 있다.

6·25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

유엔참전 22개국에 감사 우호 증진



국가보훈처는 7월7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참전국과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25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을 가졌다.

정부 주요 인사, 유엔참전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참전국 정상 메시지 상영, 국민의례, '평화의 패' 수여 및 공연 등의 순

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2개 유엔참전국과 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담아 특별히 제작한 6·25전쟁 70주년 기념패인, '평화의 패'를 주한 참전국 대사에게 수여했다.

'평화의 패'는 22개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주물 등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수거한 철조망을 한데 녹여 만든 것으로 유엔참전국과 '함께 만든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열린 7월 7일은 1950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창설결의안(결의 제84호)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엔군 참전의 실질적 기점이 되는 날이다.

◆우수회 탐방 / 제주도 향군

내실 있는 조직운영, 위상 극대화... '화합' 무기로 재도약 꿈꿔

한마음 결의대회, 읍 면 동 조직 강화...자체회보 제작, 성과 홍보 회원 숙원사업, 자체회관 건립 추진...재정 건전성 확보, 위상강화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임에도 끈끈한 조직력과 화합으로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제주도 향군을 찾았다.

제주도 향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향군을 두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단출하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 향군은 읍 면 동 조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제주도 향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사업대상 선정, 시행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또 읍 면 단위마다 조성된 추모공원 정화 및 봉사활동도 회 위상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익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한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얻어 회원들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사기양양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에 조직을 각인시키는 것은 덤이다.

그리고 매년 연수회와 한마음 결의대회를 통해 조직단합을 도모한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행사라고 볼 수 있지만 제주도 향군은 다른 그것과 좀 달라 보인다.

먼저 읍 면 동회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총회 지원금 10만원에 더해 도회 자체로 예산을 마련, 30만원 정도의 금액

을 지원해 회 활동을 격려한다. 또 올해는 코로나 19로 연기되었지만 작년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결의대회는 시 군 및 읍 면 동회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체육활동, 안보활동, 여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조직 활성화와 회원 친목도모 및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체 향군신문 제작, 조직 화합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 영웅들 발간, 위훈 기려

제주도 향군은 자체적으로 월보를 발간한다. 발간경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이 기자가 되고 편집자가 되어 원고를 정리하고 사무실 복사기로 프린팅해 신문을 발간한다. 신문제작을 위한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발간된 신문은 도회 산하 각급회와 회원들에게 배포되고 서로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 게재를 통해 연 1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어 조직운영 및 회원 자녀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는 회보 발간의 순기능으로 다른 시 도회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이다.

또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고 보훈 의식 함양을 위해 향군 자문위원이자 제주도 공보관,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수필가 정수현(83)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 영웅들'을 발간하고 있다. 안보교육의 일환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이 사업은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위훈을 기억하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양구 도솔산 전투, 강원도 고성군 884고지 전투, 호남지구 공비토벌 작전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 제주도 출신 참전용사들을 조명한 이 책은 2006년부터 13년 동안 총 416명의 제주 용사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매년 1권씩 총 13권이 발간됐다. 올해는 하반기 발간을 앞두고 있다.

사회단체로 도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큰 편임에도 제주도 향군은 독립적인 자체회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 향군회관 건립은 회원권의 증진과 위상제고 나아가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그간 계획, 추진,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 향군은 자체회관 마련을 위해 수년간 공을 들여왔으며 현재



제주도 향군은 제주시 건입동 신축예정부지 마련,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 숙원 제주도 향군회관 신축 재정자립기반 확보, 향군 위상 극대화

김달수 회장을 위시한 임직원들은 회관 건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 국회의원, 보훈지청 등 관계기관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왕래하며 회관건립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제주도 향군은 회관의 성공적 건립은 후계세대에 안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보단체 향군 위상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상 및 추모 비문 건립, 고 김용배 장군 추모제



문경출신 호국영웅 고 김용배 장군 69주기 추모제가 7월2일 용배공원에서 문경시 향군(회장 남시욱) 주관으로 엄숙하게 거행됐다. 김용배 장군은 6·25전쟁 초기 육군 제6사단 대대장으로 10월 25일 가장 먼저 압록강 주변에 진출해 태극기를 꽂았다. 문경시 향군은 2001년 홍상 및 추모 비문 건립, 조성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On-Line 보은행사



태국 향군(회장 이형배)은 6월 24일 향군 임직원과 회원을 비롯해 반딧 마라이아리순 태국 한국전참전협회 회장, 태국 참전용사, 주 태국 대사관 무관부 박광래 대령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 70주년을 앞두고 새 에텐교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On-Line 보은행사를 가졌다.

충북 향군-충북 교육청, 업무협약 학생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관 확립 위해 상호협력



충청북도 향군(회장 고종훈)은 7월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고종훈 회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함

께 충북교육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충북 향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치안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며 "안보 제2의 보루로 지역 대표 단체인 충청북도 향군이 그 역할을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향군은 7월13일, 14일 구 향군과 통합하여 향군회관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6.25 전쟁영웅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 호국 보훈단체 회장 및 회원, 일반시민 등 780여명이 추모열기를 이어갔다.



부산시 향군은 7월13일, 14일 향군회관에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군을 추모하고 위훈을 기렸다. 분향소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안보 보훈단체장과 회원 그리고 향군 임직원 및 일반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대구시 향군은 7월13일, 14일 향군회관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여 고인을 추모했다. 8개 구 군회도 자체적으로 고인의 분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분향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시민 등이 참배행렬에 동참했다.



인천시 향군은 7월13일부터 14일까지 향군회관에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6.25전쟁 구국의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의 영면을 기원했다. 분향소에는 인천 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및 향군 임직원 및 회원, 시민 등 280여명이 분향소를 방문했다.

하늘도 울었다. 아! 님이시여 ...

각급회,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 마련 추모

향군은 전국 각급회 및 해외지회 별로 분향소를 운영하며 한국전쟁 영웅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3개 시 도와 55개 시 군 구회, 7개 해외지회 등 총 75개소에서 분향소를 마련, 고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특히 폭우에도 불구하고 분향소를 설치하여 백 장군의 마지막을 함께한 향군은 호국안보단체 향군의 이미지를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켰다. 이 기간 각지에서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인원은 15,000여명에 달했다. <편집자 주>



경기도 향군은 7월13일부터 14일까지 향군회관 1층에 구국영웅 백선엽 장군 추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향군 임·직원 및 회원과 보훈안보단체 회원, 일반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양주시 향군을 비롯한 8개 시 군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했다.



강원도 향군은 7월13일, 14일 군 구회와 통합으로 향군회관에 호국영웅 고 백선엽 장군 추도 분향소를 설치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 안보 보훈단체장, 각급 기관장, 일반시민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충청북도 향군은 7월13일, 14일 양일간 향군회관내에 고 백선엽 장군 추도 분향소를 마련, 장군을 추모하고 업적과 위훈을 기렸다.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과 회원뿐만 아니라 안보보훈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이 참배행렬에 동참했다.



대전 충남 향군은 7월13일, 14일 향군회관 4층 강당에 '구국영웅 고 백선엽 장군 추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군의 위훈을 기렸다.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등과 보훈단체 회원, 일반시민들의 헌화 분향이 이어져 호국영웅을 추모했다.



전라북도 향군은 7월12일부터 14일까지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를 설치·운영했다. 도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에는 각급 기관장, 보훈단체장,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등 사흘간 약 3천2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갔다.



광주 전남 향군은 7월13일, 14일 안보회관에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마련해 헌화, 분향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한 한하 시 군 구 3곳에도 분향소를 마련 고인을 추모했다.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보훈단체, 일반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상북도 향군은 7월13일, 14일 포항시 향군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분향소에는 백선엽 장군의 위훈을 기리는 각급 기관장,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보훈단체, 일반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경남 울산 향군은 7월13일, 14일 향군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6.25 전쟁영웅 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보훈단체, 각급 기관장, 시민들이 찾아 추모 열기를 이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제주시 재향군인회·서귀포시 재향군인회는 7월13일, 14일 호국의 별이 된 백선엽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 분향소를 마련, 백장군을 추도했다. 분향소에는 제주도 향군 임직원 및 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호국보훈단체, 시민 등 650여명의 참배객이 방문했다.



미 동부, 미 중남부, 미 북동부, 미 북중부, 미 북서부, 미 서부, 호주 향군 등 해외지회에서도 각 지역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여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6.25 전쟁영웅 고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빌었다. 분향소마다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려는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 언

고 백선엽 장군, 국민 가슴에 영원히 영면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남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국토의 10%만 남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는 와중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국가의 명운을 건 대결전을 펼쳐야 했다.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당시 국군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방호벽으로 쌓아놓고 끝없이 밀고 오는 적과 대적해 물리쳐야 했다. 존각의 순간이기에 주검이 된 전우들의 시체를 문을 여려조차 없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적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땅 덩어리를 부여잡기 위해 호국의 영웅들은 온 몸으로 이 땅에 혼을 물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처절한 낙동강 방어전투가 그 무대였고, 다부동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불세출의 30대 젊은 장수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

1950년 8-9월의 낙동강 전선은 아비규환이었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나를 쫓라", 생전 백 장군의 표현처럼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백선엽 장군은 적병의 기세에 겁이 질려 물러서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며 권총을 빼 들고 선두에서 이끌었다.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장병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일제히 고지를 향해 공격 앞으로 백병전을 불사했다.

그렇게 낙동강의 혈전혈투는 계속됐고,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으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아군은 서울을 탈환, 38선을 돌파하고 일약으로 평양선두입성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고래(古來)로 어느 전장을 막론하고 전쟁터에서는 슬한 삶과 죽음의 순간 교차하기 마련이다. 1·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6·25전쟁도 그랬다. 수많은 전투가 하늘, 땅, 바다 위에서 연속이었고, 호국영웅들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쳤다. 그 빛으로 대한민국은 구사일생 회생할 수 있었다. 전쟁터에 선 모두가 영웅이요, 호국의 수호신이지만 6·25한국전쟁에서 백선엽 장군을 빼놓고 어찌 6·25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국내외 전략·전술가, 전문가들이 평해 놓고 있어서다.

세상에는 나라 잃은 백성도 있을 수 있고, 노예가 된 민족도 있었다. 보편적 인권과 누려야 할 평등에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삶을 이어가는 민족도 있을 수 있다.

하늘의 별은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더 빛이 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더 귀하고 찬란하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에게 바로 백선엽 장군이 그와 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개가 자신의 편향과 입맛에 맞는 것만을 추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하고 자 한다. 정확한 판단이나 사고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 대상에서 내가 하는 게 최선이며 제일이라는 자기중심, 자기 아집에 집착이 우선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터다.

얼마 전 우리사회는 생전의 백선엽 장군 서울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부끄럽고 가슴 아리게 하는 일들이 무차별 제기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정지권과 시민세력들이 주도했다. 물론 어떤 사안이건 간에 이견이 있고,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찬·반도 있기 마련이다. 통제되고 획일적 사회가 아닌 한 최고의 선이 있으면 최약도 차안도 있다. 공통점이 있으면 차별화도 있듯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 사안을 놓고도 평가는 엇갈리고 각양각색의 주장이 난무하는 바이다.

더불어 필자가 14일 오후 강원도 어느 부대를 방문해 문득 국기계양대를 바라보자 계양된 태극기가 '조기를 드리우고 있었다. 비록 코로나19 등 여여곡절은 있었지만 일신의 영예를 생각지 않고 국가만을 위했던 장군의 빛나는 생애처럼 그분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오늘의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였다. 이제 장군은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하늘의 별로 국민의 가슴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장군님의 평안한 영면을 고하는 바이다.

이 현 오 수필가, 칼럼리스트

하는 것이 우리사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나중 본인이 사과 발언을 했다지만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당시 국군용사들은 전우의 시신을 방호벽으로 쌓아놓고 끝없이 밀고 오는 적과 대적해 물리쳐야 했다. 존각의 순간이기에 주검이 된 전우들의 시체를 문을 여려조차 없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적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땅 덩어리를 부여잡기 위해 호국의 영웅들은 온 몸으로 이 땅에 혼을 물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처절한 낙동강 방어전투가 그 무대였고, 다부동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다. 그리고 그 현장에 불세출의 30대 젊은 장수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

1950년 8-9월의 낙동강 전선은 아비규환이었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나를 쫓라", 생전 백 장군의 표현처럼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백선엽 장군은 적병의 기세에 겁이 질려 물러서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며 권총을 빼 들고 선두에서 이끌었다. 지휘관을 믿고 따르는 장병들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일제히 고지를 향해 공격 앞으로 백병전을 불사했다.

그렇게 낙동강의 혈전혈투는 계속됐고, 이 전투의 승리를 발판으로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아군은 서울을 탈환, 38선을 돌파하고 일약으로 평양선두입성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 고래(古來)로 어느 전장을 막론하고 전쟁터에서는 슬한 삶과 죽음의 순간 교차하기 마련이다. 1·2차 세계대전도 그랬고, 6·25전쟁도 그랬다. 수많은 전투가 하늘, 땅, 바다 위에서 연속이었고, 호국영웅들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쳤다. 그 빛으로 대한민국은 구사일생 회생할 수 있었다. 전쟁터에 선 모두가 영웅이요, 호국의 수호신이지만 6·25한국전쟁에서 백선엽 장군을 빼놓고 어찌 6·25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국내외 전략·전술가, 전문가들이 평해 놓고 있어서다.

세상에는 나라 잃은 백성도 있을 수 있고, 노예가 된 민족도 있었다. 보편적 인권과 누려야 할 평등에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삶을 이어가는 민족도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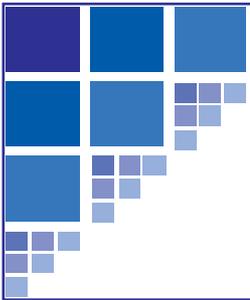
하늘의 별은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더 빛이 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더 귀하고 찬란하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에게 바로 백선엽 장군이 그와 같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개가 자신의 편향과 입맛에 맞는 것만을 추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재단하고 자 한다. 정확한 판단이나 사고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 대상에서 내가 하는 게 최선이며 제일이라는 자기중심, 자기 아집에 집착이 우선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상황과도 결코 무관치 않을 터다.

얼마 전 우리사회는 생전의 백선엽 장군 서울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부끄럽고 가슴 아리게 하는 일들이 무차별 제기되었음을 알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정지권과 시민세력들이 주도했다. 물론 어떤 사안이건 간에 이견이 있고,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찬·반도 있기 마련이다. 통제되고 획일적 사회가 아닌 한 최고의 선이 있으면 최약도 차안도 있다. 공통점이 있으면 차별화도 있듯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 사안을 놓고도 평가는 엇갈리고 각양각색의 주장이 난무하는 바이다.

더불어 필자가 14일 오후 강원도 어느 부대를 방문해 문득 국기계양대를 바라보자 계양된 태극기가 '조기를 드리우고 있었다. 비록 코로나19 등 여여곡절은 있었지만 일신의 영예를 생각지 않고 국가만을 위했던 장군의 빛나는 생애처럼 그분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오늘의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였다. 이제 장군은 우리 곁을 떠나 영원한 하늘의 별로 국민의 가슴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장군님의 평안한 영면을 고하는 바이다.

이 현 오 수필가, 칼럼리스트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6월21일 ~ 7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6월22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을 초청, 안보강연회 개최.

영등포구회 : 6월30일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참배 및 자연정화 활동 실시.



성동 광진구회 : 7월17일 휴휴암, 하조대 해변, 속초항 등 동해안 일대를 둘러보는 임직원 연수회 가려.

부산시 향군



사하구회 : 6월25일 6·25참전유공자회와 보훈회관에서 회원 100여 명을 초청, 기념식과 위로연을 가려.



북 사상구회 : 7월2일 은성의료재단 좋은 삼선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 회원복지 증진

금정구회 : 7월18일 6·25참전기념비가 위치한 호국쉼터 일대에서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

부산진구회 : 6월26일 헌7학병 추모비에서 6·25 당시 헌병으로 입소, 포로 및 물자수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헌7학병 추모식 참석.

대구시 향군

동구회 : 해안동회는 6월25일 국가유공자 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30상자를 해안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서구회 : 비산7동회는 7월16일 초복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즉석조리 갈비탕 40여개 전달. 평리1동회는 6월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삼계탕 보양식 대접.



수성구회 : 6월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향군 원로회원들에게 격려품 전달하고 식사 대접.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6월29일 연수구회와 함께 연평해전의 영웅인 윤영하 소령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에서 거행된 18주기 추모식에 참석, 위훈 기려.

계양구회 : 7월7일 입학공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실시.



부평구회 :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라이프치과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연수구회 : 7월16일 동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활성화 방안 등 현안 토의.

경기도 향군

가평구회 : 6월29일 '6·25 참전유공자 감사행사를 갖고 삼계탕, 수박, 라면, 마스크 등 생필품을 개별 포장해 참전유공자 가정'에 전달.

남양주시회 : 6월26일 관내 노천 강연장에서 '6·25전쟁 70주년과 변함없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주제로 안보강연. 6월30일 최재웅 회장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봉사활동과 단체지원 공로로 보훈처장관 표창 받아.



여주시회 : 7월10일 3901부대 2대대를 방문, 코로나19와 무더위에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햄버거, 음료수 등 간식을 전달하고 위문. 7월6일 6·25참전용사 무공훈장 찾아주기 동참하여 이우형 참전용사님을 찾아 자택에서 화랑 무공훈장 수여식 가려.

동두천시회 : 7월14일 향군회관에서 6·25 참전용사들에게, 7월15일 시각장애인 41명에게 양순종 이사가 지원한 하계 위문품 품 전달.

강원도 향군



강원도회 : 6월22일부터 27일까지 평화지역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일대 DMZ 걷기와 지역별 생태, 역사, 문화유적 탐방 및 평화지역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평화공감 DMZ 종주' 행사 실시.



동해시회 : 7월8일 동해시청을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 기탁. 7월11일 무릉계곡 일원에서 자연정화활동 및 등반대회 개최, 회원 간 화합도모.

홍천군회 : 6월29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여성회는 7월10일 개신동 배수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 6월25일 문화의 거리 으능정이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당진군회 : 석문면회는 6월25일 6·25참전용사분들을 초청하여 오찬 위로연과 함께 전쟁 경험 체험담 청취.

금산군회 : 6월23일 금산군 보훈회관에서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비대면으로 관내 6·25 참전 용사에게 위문품 택배 발송.

전라북도 향군



부안군회 : 7월8일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환경 정화 활동 전개. 여성회는 7월6일 향토방위와 해안 경계작전에 힘쓰고 있는 부안 '고희대대'를 방문,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마스크 전달.

군산시회 : 7월11일 월명공원 해병대 전승기념탑에서 거행된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승기념행사 참석.

익산시회 : 7월10일 향군회관에서 나라사랑 김복현 안보강사를 초빙하여 '남한을 적으로 규정된 북한'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완주군회 : 여성회는 7월17일 이서면에 거주하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 집을 찾아 대청소 봉사활동 실시. 같은 날 여성단체연합회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썬 옥수수 600개 전달.

전주시회 : 6월30일 완산, 덕진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과 효자동 스위트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회원 확대방안 등 현안 논의.

광주 전남 향군



대한민국 최고 ·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보성군회 : 여성회는 7월7일 문경순 회원 자택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치봉사 활동 전개.

광양시회 : 여성회는 6월22일 여성단체협의회와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80여 경로당에 전달.

구례군회 : 칠의대대를 방문, 무더위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생수 2,000병 지원.



함평군회 : 6월27일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 200인분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여성회는 6월29일 자매부대인 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사관 후보생들을 격려. 6월25일 육군 제3260부대 3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7월7일 봉현면 6·25전쟁 선양비 주변 정화 활동 실시.



경주시회 : 7월9일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초청 위로연 및 안보포럼' 개최.

문경시회 : 6월23일 육군 제5837부대 문경대대에서 열린 대대장 이 취임식 참석.

경남 울산 향군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여성회는 7월3일 나눔의 집을 방문,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사랑나눔 기부행사 실시.

창원 진해구회 : 6월26일 벚꽃치과 의원과 향군할인가맹점 체결, 회원 복지 증진. 여성회는 6월23일 6·25참전기념비 참배 및 정화활동 실시.

통영시회 : 7월16일 8358부대 1대대를 방문, 훈련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여성회는 7월10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전망과 우리의 다짐'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7월5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통영한산대첩 전국서예대전 작품전시회에 봉사활동.



거제시회 : 6월27일 사등면 가조도 실전

마을에서 수중재난안전구조대발대식 가져. 7월9일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옥포동 흥포레스트 리조트와 업무협약 체결. 7월15일 6·25참전용사와 미망인 2분에게 선봉기와 쌀국수 전달.

진주시회 : 7월17일 강민국 국회의원실에서 강민국 의원 주관 안보 보훈단체장 간담회 참석.

하동군회 : 7월7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참전유공자 및 독거 가정에 반찬나눔 봉사.

합천군회 : 7월3일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방문, 위문하고 합천사랑 상품권을 전달. 6월23일, 7월2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 실시.

의령군회 : 7월3일 생계보조비 대상자가

구를 방문, 생활용품 전달하고 위로.

창녕군회 : 7월1일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전병력 위문 및 격려활동 전개.

울산 동구회 : 7월7일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차량 정비업체 '총각네 빵구집'과 향군 가맹점 협약 체결.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7월1일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조작업, 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 펼쳐. 7월15일, 16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 기념으로 제작한 마우스패드를 관내 제



주 동초등학교와 토평초등학교에 전달.

서귀포시회 : 여성회는 7월17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일 올레시장에서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동흥동회는 7월8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고등학교 등지에서 방역활동을 실시, 청소년 안전 생활환경 조성.

대한민국 1천만 기업 누구나!

언택트시대 기업생존전략 세미나

-복지물 유통 판로개척과 특허 전략-

"향군복지물은 물론 경찰청, 대법원, 감사원, 삼성전자, 엘지전자 복지물 등 1,500여개 공무원·대기업 복지물 입점 및 특허출원 무상지원!"

"창업유통홍보" 20년 노하우를 전수한다!

조명환 경영학박사

- 現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광고마케팅 사업단장
- 現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겸임교수 (교수과목: 마케팅포지셔닝)
- 前 PR컨설팅 회사 (주)이슈캐스터 대표이사 - 바디프렌드, 오리온, 교육부, 식약처 HACCP, 중소기업 등 총 1,000여개 고객 마케팅 컨설팅 수행

"2020년 9월 1일(화) 첫 강의"

모집기간 : 상시접수 진행&선착순 모집

매주 화·목 오전 10시~오후 3시 (1주 과정)

✓ 화요일 오전 (오전 10시~오후 12시)	· 복지물 유통 비즈니스	: 복지물 현황 및 입점 프로세스
✓ 화요일 오후 (오후 1시~오후 3시)	· 특허의 필요성	: 아이템 선정 및 IP특허전략
✓ 목요일 오전 (오전 10시~오후 12시)	· 특허 개발 전략	: 기업별 특허 적용사례 및 IP전략 수립
✓ 목요일 오후 (오후 1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3시)	· 매출 증대 방법 · 비즈니스 관계론	: 판매 촉진을 위한 소비자 행동과 홍보마케팅 : 휴먼 네트워크의 힘

사업이 잘 안되신다구요? 특허는 있으신가요? 어느 분야든 특허출원 해드리겠습니다!

박세준 변리사

- 現 베이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現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원격화점은행 교수
- 現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식재산권 교수
- 발명진흥회, 생안기술연구원 등 지식재산권 강의

※대 상: 특허출원이 필요한 기업, 복지물 유통에 관심있는 기업, 매출증대가 고민인 기업 등

※교육비: 99만원 (VAT포함) ▶ **세미나비, 식사비, 특허 출원비, 복지물 입점비 포함** (입금계좌 : 국민은행 / 801701-04-196523 / 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장 소: 센터포인트 광화문점 (주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광화문역 1번출구 앞)

※오전~오후 강의 사이(12:00~13:00)에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korvaedu.modoo.a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집인원

**한기수당
선착순 20명 모집**

※모든 과정은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선착순 20명** 마감 시 다음 기수로 우선 접수 됩니다.

신청방법

**업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관련서류는 문의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전

**특허출원 1건
+ 복지물 입점 1품목 무료 지원!**

※신청업체대상으로 **특허출원 1건, 복지물 (이지웰, 베네퍼아, 비즈마켓 중 택1/입점 희망시) 1 품목 입점을 무료 지원**해드립니다

※특허 출원은 제품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향군 정회원 가입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1천만 기업 누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세미나문의) Tel : 1566-3641 Fax : 02-720-1315 e-mail : korvamktg@daum.net

“국가는 국군포로의 안전한 귀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성우회 성명, 국군포로 실태 파악 및 송환은 국가 책무

성우회(회장 이종욱)는 7월10일 “국가는 국군포로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6·25 전쟁 70년이 지났음에도 지금은 90대인 약 560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성우회는 “국군포로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끝

까지 안전하게 귀환 시킬 때 국가 안보는 튼튼해 지는 것”이라며 ‘한명의 병사도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는 정신으로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에 “국제법에 의한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 처리 및 송환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며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국군 실종자 131,907명 중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해 아직도 생

사 여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가 약 8만 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당국에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단 한 명의 국군포로라도 송환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목단체 활동

제7대 노무식 회장 선출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노무식)는 6월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7대 노무식 회장을 선출했다.

제4차 이사회의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중)는 7월2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4차 이사회의를 가졌다.

호국영웅 감사·위로연



6.25참전유공자회(회장 노무식)서울 지부는 7월9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호국영웅 감사·위로연을 개최했다.

군산·이리·장항지구 전승행사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흥희)는 7월11일 군산 은파전적비에서 70주년 해병대 최초 전투 군산·이리·장항지구 전승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7월14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3/4분기 상임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천안함 폭침 전상자 격려



대령연합회(회장 유승일)는 7월15일 천안함 폭침 전상자 신은총 하사 자택을 방문, 투병생활을 격려하고 금일 봉을 전달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184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오산한국병원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 031-379-8676 : 10%

기타

· 남대문비전안경원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02-771-1199 : 30~50%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

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죽교동 440-4) 061-243-3399 : 30%

기타

· 그린리곤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⑦

북한의 8월 총공세 저지...대구 사수 다부동 전투 승리 기려

백선엽 장군의 국군 제1사단, 북한군 3개 사단 격멸...최초 한미연합작전



※다부동전투

낙동강방어선 전투 중 국군 제1사단이 대구 북방 다부동에서 미군과 더불어 북한군 3개 사단을 격멸한 전투를 말한다.

낙동강방어선 가운데 대구 북방 22km에 위치한 다부동(현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은 대구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로서 만일 다부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형상 야군은 10km 남쪽으로는 철수가 불가피하고 대구가 적 지상화포의 사정권내에 들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다부동 일대에 증강된 3개 사단을 투입, 약 21,500명의 병력과 T-34전차 약 20대(후에 14대 증원) 및 각종 화기 약 670문으로 필사적인 공격을 해왔다.

이에 반해 이 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보충받은 학도병 500여 명을 포함, 7,600여 명의 병력과 172문의 화포 등

열세한 전투력을 극복하면서 공산군의 이른바 8월 총공세를 저지하여 대구를 고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미 제1기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공산군의 9월 공세로 한때 국군 제1사단이 사수했던 다부동일대의 주저항선을 적에게 붕괴 당하였으나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개시된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으로 다부동을 탈환했다.

한편 다부동 전투를 통해 한미간의 실질적인 연합작전이 최초로 이뤄졌다. 미 8군은 대구 관문인 다부동 지역이 위기에 처하자 1950년 8월18일 군 예비인 미 27연대를 증원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미 23연대를 두모동에 중심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미군 2개 연대가 국군 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들 미군 부대가 국군 1사단의 작전 책임 지역에서 공동의 작전 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시한 연합작전은 성공을 거뒀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에 위치해 있다. 외부에서 보면 전차의 모습을 띠고 있고 전시관 외벽에는 치열했던 전투의 모습을 담은 부조 작품이 보인다.

전시관에서는 6·25전쟁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보여주며 특히 다부동 전투에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볼 수 있다. 55일 동안 다부동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전투,

즉 왜관철교 폭파부터 자고산 전투, 328고지 전투, 유학산 전투, 불링엘리 전투 등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착용했던 찌그린 철모와 야전삼을 비롯하여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북한지폐, 노동당원증, 그리고 목함지뢰통 등 다양한 전시 유물도 눈길을 끈다.

전시장 한편에는 전쟁 당시 사용됐던 다양한 총기들도 전시되어 있다. 다부동 전투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 등에서 노획한 총들을

볼 수 있고 러시아, 미국 등의 무기들을 서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외부 전시장에 있는 각종 군사 장비들이다. 그중에는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이 실제로 다부동 전투에서 사용했던 장비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면 구국용사총훈비와 구국경찰총훈비,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던 장병들과 경찰의 명각비 등이 세워져 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힘들게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한다.

증상

사고 후 침습적으로 반복되는 재경험, 사고와 관련된 자극의 회피, 사고와 관련된 인지나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과도각성과 교감신경 항진 관련 증상 등이 있다. 원하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사건과 관련된 꿈을 꾸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상이 지금 당장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플래시백(flashback)을 겪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행위나 생각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사고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끼거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해 지거나 비현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 표현이 둔해지기도 한다. 외상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된 후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 과다각성을 겪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거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원인

특정 외상 사건이 주요한 유발 인자임이나, 과거에는 외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 신경전달물질 체계와 불안/공포와 관련된 뇌 부위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한 부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신경전달물질(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내재성 오피오이드 등)이나 편도체, 시상하부-뇌수체-부신피질축 등의 다양한 뇌 부위의 이상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신경계의 과활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발병하지는 않은 것을 고려하면 외상 사건의 주관적 의미, 아동기의 외상 경험, 부족한 가족/사회적 지지체계, 유전적 취약성, 최근에 경험한 생활의 변화, 과도한 알콜 섭취 등의 심리 사회적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진단·검사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와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정해진 진단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때 심리검사나 설문검사가 진단과 증상 평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아직

하나의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설문검사 등으로 확진을 하지는 못한다. 때로는 외상적 사건으로 유발된 뇌손상과 같은 신체 질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신체 질환을 구별하기 위하여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하기도 한다.

치료방법

치료의 첫 단계로 정서적 조절과 안정을 돕는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선 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설명하고 환자의 반응이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강조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요인별로 대처 방법을 함께 찾아나간다.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감각을 이용해 외상 경험에 대한 기억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착지연습, 상징적인 마음의 이미지를 이용해 불편한 생각, 감정, 감각을 조절하는 봉인연습 등을 같이 하게 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안정화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 안정화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출치료, 인지처리 치료를 포함한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역동적 치료,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와 같은 치료를 해볼 수 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6월 23일 ~ 20년 7월 21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30)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70)
• 권율부대 강모아 1(6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환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보보고/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남북 간 차이 좁히고 합의거쳐 통일헌법부터 만들어야

남북은 1948년, 대한민국은 8월 15일에 북한은 9월 9일에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여 70년이 넘도록 각기 다른 성격의 이념을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체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결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계층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 모두는 통일을 향한 염원의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정책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통일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한국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한국의 통일정책은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론' 이었고, 1960년 4.19혁명이후 제2공화국인 장면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였다. 그 다음에 출범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조국의 근대화를 강조한 '선건설 후통일'을 통일정책 기조로 정하여 실행하였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난 후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 선언)을 발표, 그 다음해인 1974년 8월 15일 북한에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함으로써 '선평화 후통일'이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제5공화국인 전두환정부는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9년 제6공화국인 노태우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책기조로 삼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하기로 기본정책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김영삼정부에서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8년 김대중정부와 2003년 노무현정부,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정부에까지 계승받아 이어져온 통일방안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정

〈그림1 북한의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

'민족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방안	남북연방제 및 고려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및 조국통일 3대헌장
1950년대	60년대~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연방제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 특징을 변화시켜 왔다. 1960년 처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족지론'에 의한 무력·적화 통일을 내세웠다. '민족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됐고,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했다. 이후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체제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년대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

〈표1 남·북한 통일정책 변천과정〉

구분	남한	북한
1948년~1960년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유엔 감시 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민족지론(민족해방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 정부) 남북자유총선거론 (유엔 감시하)	남북연방제(1960)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선 건설 후 통일론(1966)	
1970년대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3. 6. 23) 선 평화 후 통일론(1974)	고려연방제(1973) 조국통일 5대 강령
1980년대	제5공화국 (박정희 정부)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198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1990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1991)
2000년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낮은 단계의 연방제 (200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994)	
2010년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김정은 정권
	조국통일 3대 헌장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남북한 통일 방안

남한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과 자주, 평화, 민주, 통일의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민주 국가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번에 이룰 수 없는 통일을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위한 3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2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화해협력 단계 (1단계)	남북연합 단계 (2단계)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 단계 (3단계)
·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 분단상태 평화적 관리	· 교류협력 제도화 · 상호 신뢰 구축 · 민족 동질화 추진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 통일국회 구성 및 통일정부 수립

· 남한의 통일방안 분석 및 평가

우리의 통일 방안으로는 남북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 정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며,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황에서 형성된 상호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기위해 과도적인 중간과정이 필요하여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 단계' 설정하였다. 특히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기초해 통일문제를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와,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미해방지구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치하의 통일을 의미한다.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민족지론'에서 '민족공존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보여 왔다.

· 민족지론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하는 전략으로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이유는 광복 직후 여러 면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이다.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

1970년 초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돼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 민족공존론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존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존',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족공존론'은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이 심화되어 체제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 대남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 북한 통일방안 분석 및 평가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 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해 전개되어 왔고,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시기별로 변화를 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체제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

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 방법 등에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연방제란 자치권을 가진 복수의 지방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해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통합 형태를 의미하나,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돼 있다.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 연방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는 바, 현실적으로는 지역정부 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에 연방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과 관련해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표로 연방정부를 구성할 경우, 상호간의 대립이나 입장 차이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기본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방안은 서로 통일을 하고 각각의 체제를 둔 채, 남북 한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을 바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로 설정하였고,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형태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루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인민 계급이 중심으로 한 통일을 하고자 한다.

셋째, 남한의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인데 반해 북한의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이는 북한이 1972년 7.4공동성명의 평화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하는 결과이다.

넷째, 북한은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남한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체도가 변해야 한다고 선결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단계적으로 3단계의 통일과정과 과도적 중간과정을 두고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를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과도적 중간 기구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고 특별히 정치협상회의를 거쳐서 통일에 이르고자 한다. 체도를 통일하기 전에 일단 국가체제를 존립하여 국가를 통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급진적인 통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남한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일곱째,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의 국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볼 때, 남북 양측의 통일전략 및 통일방안은 통일의 기본 철학, 통일의 기본 원칙, 전제조건 존재 여부, 통일과정, 통일 실현 절차, 통일국가의 형태와 기구, 통일 후의 미래상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남북 간의 차이를 좁히고 통일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 통일헌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표2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 후 교류협력)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국가형태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전제조건	-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통일과정	화해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3단계) ※민족사회 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국가체제 존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통일체제	남북연합 -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국민투표로 확정	-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

〈참고자료〉

2020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9. 12. 요약 발췌.
※본 안보정보 분석은 대한민국의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